

“ 크리스천 지성인 ”

■ 이종윤 원로목사

지성인과 지식인은 구별된다. 지성인은 지식을 갖춘 전문인 일뿐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줄을 아는 지혜인이다.

지성인은 개인은 물론 민족사회의 안개를 헤치는 등불이 되어 인간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작용을 한다.

크리스천 지성인은 인간의 교만한 지식에 힘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침을 찔러 그 힘을 빼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것을 지성의 비판작용이라 한다.

대학사회나 지식인에게 비판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학문은 더 이상 학문으로서 가치를 상실케 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비판과 비난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난은 부정과 파괴를 위한 것이라면 비판은 선과 악, 거룩함과 속된 것, 아름다움과 추함, 진리와 거짓을 분간하는 명철(明哲)인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 작용은 지식활동에 속했다기보다 지성 작용에 속한다.

비판을 통해 악과 거짓이 추방되고, 굽은 것이 곧게 펴지는 것이기에 학문연구에서 비판 작용이 결여된다는 것은 매우 위대한 것이다. 지성의 비판 작용을 학문이 바탕으로 삼은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는 정당성에 있지 않고 진실성에 있다. 진리는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논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성사회는 그러므로 정당성보다 진실성을 강조하고, 지성인은 사실과 진리만을 주장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크리스천 지성인이 조심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낭만과 청춘이라는 특권 아래 숨겨진 감정적 흥분과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학문하는 사람은 항상 진리를 찾고 배우는 마음으로 겸손히 타인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 문제를 문제로 이해하고 질문할 줄 아는 자유자다.

편견에 얽매인 개인이나 사회는 진리에 접근하기 보다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적인 틀 속에 집어넣어 버리려는 악습에 빠지는 이는 지성인이라 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적, 반지성적, 파괴적 비난들은 학문 활동을 고체화시키고 진리를 찾는 일을 방해할 뿐이다.

크리스천 지성인은 진리 편에서야 하고 자신의 욕망도 자제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인내와 진리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다. 크리스천 지성인은 하나님 면전에서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투철한 역사의식을 갖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 변수와 영원히 변치 않는 상수를 동시에 보되, 변수에서 상수를, 상수 속에서 변수를 읽는 양식(良識)을 가져야 한다.

지식과 감성 즉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는 성숙한 조화로운 인격을 갖춘 인간상을 지성인이라 부른다. 냉철한 지성과 온화한 감성을 겸비하고, 이상과 현실, 자유와 책임, 보수와 혁신이 높은 차원에서 승화되어 성숙한 전인격적 차원의 능력을 갖되 미래에 대한 부단한 모험정신과 새로운 역사 창조의 의지로 현재뿐 아니라 급격히 변천하는 지식과 환경을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아는 창조적 인물이 지성인이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거기에 더하여, 크리스천 지성인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사랑과 화해, 관용과 덕을 쌓되 미래 소망을 가진 인물이다. 학문의 지고성과 이데올로기적 확신을 상대화 할 수 있는 영적 성숙성을 지향하는 크리스천 지성인은 오늘의 문제 이해와 현실과 미래에 대한 자세 또한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 안에 성숙한 크리스천 지성인의 수가 점차 많아지기를 바란다.

-한국장로신문 [1369호] 2013년 6월 1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John 4:24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yung Won Jang
Hymn	36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tthew 2 :1-23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Congregation
Sermon	"King Herod versus King of the Jews" Pastor
* Hymn	89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윤누가	교육전도사 주원순 강남희 최근영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신 교 사 강아름주enna,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김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정장진홍성임(필리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홍쿠아 망 탕 켈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쟁 찬다 사우 키움 랑 호라 라레 벤 비에 마웅 찰 짜우 미카엘 미안파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박스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스또, 린툼 수란준 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고난의 역경에서 구원의 은총으로 ”

■ 욥 42:1~6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없이 삶 가운데 고통과 환란을 만나고 믿음의 시련기를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성도들은 자신에게 닥쳐온 불행한 환경에 대해 슬퍼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그 역경으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며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을 터득합니다.

욥은 고난의 시간 동안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참된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모범의 길을 보여줍니다.

1. 사탄이 욥을 시험하다
 욥기는 사탄 루시퍼의 흥계에 따라서 고난의 역경을 받게 되는 욥의 시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욥은 신앙이 뛰어난 사람으로 건강과 부귀와 명예를 누리던 당대의 의인이었으며, 그의 신앙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자식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욥에 대해 사탄은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주께서 욥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면 그가 주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 사탄은 욥의 건강과 재산과 자식까지 모두 잃게 되고, 몸에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했지만 욥은 하나님 신앙을 변함 없이 지켰습니다.

2. 욥의 인내
 욥에게 이 같은 시련이 닥치자 욥의 아내는 좌절에 빠져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는 변함이 없음을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 2:10). 욥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과 불굴의 의지가 확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욥을 위로하겠다고 멀리서 세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학자였고 선생이었고 변론가였습니다. 그들은 차마 쳐다보기조차 민망한 욥의 처참함을 보며 욥을 향하여 정죄자, 비방자 그리고 죄인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욥을 비방했습니다.

욥은 한탄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욥 10:19-20). 사람들은 욥에게 닥친 비극과 고난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욥을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욥에게서 멀리 떠나셨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기를 원하셨고 그의 순종을 사랑하셨으며 변함 없이 그를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욥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진경한 마음을 깨닫고, 논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실천적 고난과 영원한 지혜에 대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진주조개가 모래알 하나를 감아 싸고 고난의 세월을 이기며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냅니다. 이처럼 눈물과 아픔 고난과 연단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곤고함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몸부림 속에서도 욥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욥이 당했던 고통과 환란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단련하신 후에 그를 영광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맺는 말
 인간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 욥의 회복도 하나님 신비의 영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욥은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표현했던 하나님의 넓음과 깊음과 높이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입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기근과 양식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 규정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깊은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욥의 이 같은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어 이전보다 더 큰복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동일한 구원의 증거이고 축복의 표시입니다. 환란의 때에 회개하고 인내하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 장중철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차도훈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홍일성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최형열 장로

오후 5시 ·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이종운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47:5-7 인 도 자
 찬 송 175(162) 다 함 께
 기 도 정철웅 집사
 성 경 계 8:1-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일곱 나팔의 배경" ... 설 교 자
 * 찬 송 249(249)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문영희 권사
 성 경 범후 1:1-1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Sermon 천국신앙 강창희 목사
 * 찬 송 Hymn 380(424) ...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 · 홍혜란 김양안박수강

설 교 장석남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멜	송재일	
III 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 42:5-6)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살림권사회 월례회 / 17일(주) 오후3시20분 502호
2. 호산나 찬양대 찬양연습 / 17일(주) 오후3시50분 602호

◆ 알 림

1. 101호 예배
 중교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주일 오후 1시-2시30분
3. 603호 예배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4.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주일 오후 1시-2시
5.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6.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7.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8.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9. 의료 상담 / 오병호(피부과), 노선균(흉부외과)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0.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1. 강창희 목사 소개 연세대학교 신학과(B.Th.) Fuller신학교(M.Div., Ph.D.) 동신교회 교육지도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 신약신학교수, 학감, 대학원장 복음주의신학회 총무 역임 현, 아세아연합신학대 명예교수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명저번역위원장 ◆ 장 레 1.故 권혁운 집사(1교구 권택숙 집사의 부친, 김영선 집사의 장인) / 9월15일(금) 별세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890명	265명	281명	1,436명	159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9/10)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9월 10일	헌금	28,812,100	
"	특별예배비		1,000,000
"	찬양운영비		100,000
"	교회학교운영비		503,000
"	선 교 비		22,800,000
"	구 제 비		400,000
"	비전2020		1,200,000
"	출 판 비		270,000
	지원교회		6,000,000
"	사무용품비		5,100
	교통통신비		515,800
	차량유지비		450,000
	세금과공과		1,550,170
"	복리후생비		503,670
	수도광열비		495,000
	수선유지비		29,700
	식당운영비		2,248,650
"	합 계	28,812,100	38,071,090